

# 협회사식/업계동정

## 최우수상에 김형주어린이 글짓기입상자 시상식개최

한국유가공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부가 후원한 제 9회 어린이우유 장학금 글짓기대회에서 김형주군(인천부평국교 4년)의 '고마운 우유'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금상에는 신수희양(서울동자국교 4년)과 윤서영양(서울경수국교 3년)이 뽑혔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입상어린이

이 학부모등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글짓기대회 입상자 78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차지한 김형주어린이에게 농림수산부장관 상장과 장학금 20만원을 수여했다.

또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 상장과 장학금 15만원, 10만원, 5만원씩을 각각 수여했다.

이외에 장려상에 입상한 50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국민건강과 제2세 국민의

체위향상을 위한 필수영양식품인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생활에서의 체험을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소비확대를 통한 낙농및 유가공업의 병진적 발전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작문실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글짓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2천2백 82편이 응모했다.

입상자 명단은 별표와 같다.

## 매일, 바나나우유 시판 PE병 비피더스 우유도

매일유업은 최근 폴리에틸렌(PE) 병 비피더스우유를 개발, 본격적인

### ◆ 제9회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 입상자

#### 최우수상 (1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김형주	4-3	인천 북구 부평국교

#### 금상 (2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신수희	4-3	서울 성동 동자국교
윤서영	3-8	서울 성동 경수국교

#### 은상 (5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조윤경	6-	대전 중구 태평국교
김종명	5-1	충남 보령 원산국교
오수정	6-3	대전 서구 복수국교
이지은	4-4	전북 전주 전라국교
변현정	6-1	충북 증원 수안보국교

#### 동상 (20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고은정	5-2	경남 김해군 대동국교
이무선	3-3	서울 강남 구정국교
김양원	6-3	부산 금정 장서국교
김지연	4-	충북 청원 옥포국교
김용균	6-4	서울 동대문 이문국교
권효정	6-4	서울 동대문 이문국교
김미주	5-2	전북 군산 군산남국교
이재우	6-5	전북 전주 전라국교
이하나	5-1	전북 김제 비룡국교
강은실	6-7	대구 동구 효신국교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이송이	6-12	대전 중구 태평국교
박지혜	6-1	서울 서초 교대부속국교
김해민	5-6	강원 삼척 삼척국교
박소은	3-4	서울 강남 논현국교
김지선	5-11	광주 북구 운암국교
우윤정	6-	경기 안양 호계국교
지혜란	6-5	서울 마포 홍대부속국교
윤소열	6-11	전북 전주 서원국교
최미희	5-2	서울 성동 동자국교
현윤경	6-4	경기 의정부 배영국교

#### 장려상 (50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설민호	6-4	서울 동대문 이문국교
김수경	6-1	충북 옥천 이원국교
신보영	5-10	부산 동래 사직국교
김정진	4-1	대전 중구 태평국교
박연희	6-1	광주 북구 경양국교
김현정	6-1	광주 북구 경양국교
곽윤승	6-1	충북 영동 매곡국교
임경욱	6-6	광주 서구 제석국교
윤혜선	6-6	광주 서구 제석국교
여민이	4-2	충북 옥천 이원국교
한진	6-1	경기 안양 호성국교
윤소정	6-8	전북 전주 삼천국교
이정우	6-4	서울 중랑 금성국교
이화신	6-5	경북 경산 경산국교
이진희	2-4	서울 중구 리라국교
김해연	6-2	전남 여수 미평국교
유지혜	5-8	광주 북구 경양국교
김지홍	4-5	광주 북구 경양국교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유제원	6-8	대전 중구 태평국교
정가영	4-2	대구 남구 남도국교
선민주	3-4	서울 노원 상월국교
배희경	5-	부산 동래 창신국교
김현철	6-5	전북 전주 전라국교
안소정	5-7	서울 도봉 수유국교
이슬기	4-	전북 임실 신흥국교
김은영	3-2	대구 달서 효성국교
이현정	5-5	경남 진주 동진국교
김시애	6-1	전북 김제 용지국교
임효연	6-1	서울 중구 충무국교
오은영	5-10	전북 전주 풍남국교
주혜미	6-3	충북 단양 매향국교
문지현	3-2	서울 서대문 북성국교
최민주	5-2	대구 달서 진천국교
장은지	6-7	인천 동구 창영국교
강시은	5-1	경기 여천 초성국교
김해련	4-7	서울 송파 영풍국교
박경희	3-7	계주시 계주동국교
김지혜	3-1	경남 창원 반송국교
박원애	6-3	경남 삼천포 대방국교
조경옥	6-	충북 단양 장정국교
김희철	2-6	대구 달서 월배국교
임이지	2-5	광주 북구 경양국교
김희성	5-1	서울 강서 방화국교
한지민	6-2	경북 의성 금성국교
박수민	2-3	경기 부천 부안국교
박세진	6-5	서울 양천 신원국교
이성희	4-4	대전 서구 복수국교
박수현	6-5	경남 진주 동진국교
남유진	6-3	대전 서구 한밭국교
홍소영	6-3	경북 안동 송현국교

시판에 들어갔다.



기존 종이팩 대신 개발한 이 제품은 2백50g, 9백50g짜리로 권장 소비자가격은 종이팩과 마찬가지로 5백원, 1천6백50원이다. 9매일유업은 이와 함께 2백50g짜리 폴리에틸렌병 바나나우유(권장 소비자가격 5백원)도 시판에 들어갔다.

### 유업체 생산책임자 대상 유제품 품질관리 워크숍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11월 11~12 양일간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93우유 및 유제품의 품질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업체 공장장등 생산직간부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사부위생국 주기종 위생관리과장이 '94년 식품위생 관리지침 및 감시방향'에 대해, 강윤구 위생정책과장이 '식품위생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농림수산부 김정남축산경영과장이 '원유위생등급별 차등가격제 도입내용 및 금후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미 8군 유제품공장 운영 서울우유조합 낙찰 선정

서울우유조합이 미8군 유제품공장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서울우유에 따르면 12월10일 미군 당국이 실시한 성남비행장내 유제품 공장 운영권입찰에서 52억7천9백만원으로 경쟁업체인 파스퇴르유업을 제치고 낙찰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우유는 앞으로 9개월간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등 각종의 유제품을 미군 성남공장에서 생산, 납품하게됐다.

### 전국 5대도시서 야쿠르트대회 장기근속자에 해외여행등 포상

한국야쿠르트유업(대표 李銀鮮)은 지난 10월 9일 서울 호암아트홀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전국 5대도시에서 제23회 전국야쿠르트대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전국에 근무하는 8천6백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전작을 위해 가진 이 행사에서 20년근속자 33명과 판매실적이 우수한 24명에게 각각 동남아 및 일본관광 특전을 주었으며 15년 근속자 38명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또 10, 7, 5, 3년 근속자 2천2백명도 포상했다.

### 매일, 품질개선 새 맘마밀 발매

매일유업(대표 朴熺柱)은 최근 기존 맘마밀의 품질을 개선한 새맘마밀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매일유업은 3~4년 묵은 통일미를 쓰는 기존 이유식제품과는 달리 햅쌀 일반미와 소화흡수를 도와주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 주는 비피더스 유산균을 사용한 점이 이 신제품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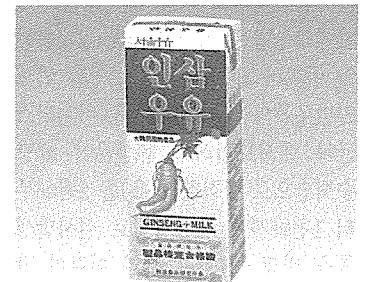
이 신제품은 ▲쌀과 우유가 주성분인 라이스밀크 ▲우유, 곡류, 쇠

기 등이 강화된 믹스프루츠 ▲당근, 토마토, 시금치 등 야채가 풍부한 믹스베지터블 ▲보리, 옥수수 등 곡류와 요구르트를 강화한 요구르트 시리얼 ▲천연치즈, 쇠고기, 생선흰살 등이 함유된 치즈 비프 등 5종류이다.

신제품의 용량은 2백60g, 5백20g으로 권장 소비자가격은 2천9백원, 5천5백원이다.

### 서울우유, 인삼우유 개발시판 인삼엑기스 5백60mg 첨가해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趙光鉉)은 최근 기존 우유의 건강식품 개념을 한단계 끌어올린 '인삼우유'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서울우유가 자체기술진에 의해 개발한 이 제품은 특수공정을 통해 정선된 인삼에서 추출한 5백60mg의 인삼 엑기스와 올리고 당을 보강했다.

슬림팩으로 개발된 이 제품의 용량은 180ml로 권장소비자 가격은 7백80원.

### 청주우유, 유가공공장 준공 유가공제품 1백톤 생산능력

청주우유협동조합(조합장 朴章淳)은 12월 3일 청주시 봉명동 362-5에서 宋燦源축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외빈과 조합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화된 현대식 생산시설을 갖춘 유가공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청주우유에 따르면 62억원을 투입해 이날 준공된 유가공장은 부지 3천7백69평, 건평 7백55평규모로 1일 집유능력 1백30톤에 시유와 요구르트등 유가공제품 1백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비피더스균우유, 일반우유 비해 소화불량 발생률 현저히 낮아

비피더스균이 함유된 우유가 일반우유에 비해 소화불량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 연구소 姜國熙교수팀은 지난 5~6월 2개월동안 비피더스우유의 효능연구를 위해 일반우유와 비피더스우유(비피더스균과 에시도필러스 유산균이 ㎖당 수백만으로 강화한 우유)를 2백㎖부터 1천㎖까지 음용량별로 설사발생률을 비교·실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성인 55명에게 1일1회공복 및 식후로 구분해 우유 2백㎖부터 매일 1백㎖씩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설사할때까지 일반우유와 비피더스우유를 그룹별로 음용시킨 결과 양이 증가할수록 설사발생률도 높았으며 일반우유에 비해 비피더스우유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

일반우유의 설사발생률은 2백㎖에서 0%, 3백㎖에서 10.9%, 4백㎖21.8%, 5백㎖ 34.6%로 나타난 반면 비피더스우유의 설사발생률은 2백㎖ 0%, 3백㎖ 0%, 4백㎖7.3%, 5백㎖25.5%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피더스우유와 일반우유의

음용량 차이로 인한 설사발생률 빈도를 분석한 결과 비피더스우유를 일반우유보다 1백~3백㎖까지 더 마신 사람은 52.8%였으며 일반우유를 비피더스우유보다 1백~2백㎖까지 더마신 사람은 14.6%로 나타나 비피더스우유는 일반우유보다 더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 서울, 멜론과즙우유 본격시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최근 멜론과즙을 첨가한 멜론과즙 우유를 생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서울우유는 이 신제품이 기존의 멜론맛우유나 멜론향우유와는 달리 멜론과즙을 넣어 만든 본격적인 과즙우유로 멜론의 신선한 맛과 영양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 멜론과즙우유는 올리고당이 첨가되고 비타민 D가 강화됐으며 유지방을 2%까지 억제시킨 새로운 다이어트 과즙우유라고 서울우유는 말했다.

이 제품의 용량은 1백80㎖에 권장소비자가격은 3백30원이다.

## 종합소식

### ‘국민건강생활지침’ 전면개정

보사부는 10월 15일 지난 84년에 제정돼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국민건강생활지침’ 성인병 및 정신질환의 예방을 강조하고 신체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건강수칙을 마련했다.

새국민건강 생활지침은 건강환경의 변화에 맞춰 ▲위생 ▲균형잡힌 영양 ▲질병예방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정신건강 ▲사

고예방 ▲환경공해 예방 등 8개 주요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새로운 건강수칙은 종전에 ‘손을 씻고 이를 닦자’ ‘쓰레기통의 뚜껑을 덮자’ ‘행주와 도마는 삶거나 말려서 썬다’ 등 3개항으로 분산된 위생수칙을 국민들의 위생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반영, ‘청결을 생활화합시다’ 로 통합했다.

또한 과식으로 비만, 소아당뇨 등의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을 가볍게 먹도록 명시했으며 흡연이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명됨에 따라 지나친 담배를 삼갑시다라는 종전의 규정을 아예 ‘담배는 피우지 맙시다’ 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증가에 대응, ‘일하며 보람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를 추가했으며 이외에 각종사고 및 환경공해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사부는 종전의 7개항에서 8개항으로 확대개정된 국민건강생활지침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각종 진단과 소책자를 제작, 각급 학교 및 보건소 등 행정관청에 배포하고 산하단체와 사보발행 기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에 게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 생활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을 생활화합시다.
2.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읍시다.
3.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은 때맞추어 받으십시오.
4. 과음하지 말고 담배는 피우지 맙시다.
5.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의 활력을 유지합시다.
6. 일하며 보람찾고 즐거운 마음

으로 살아갑니다.

7. 공공질서 지키며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8. 아껴쓰고 적게버려 건강한 환경을 만듭시다.

### 原乳 체세포수 등의 적용 93년말까지 2개월 유보

농림수산부는 10월 29일 당초 10월 31일까지 연장한 原乳의 체세포수 등의 등급에 대한 차등가격제 적용, 유보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다시 연장키로 했다.

이같이 유보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유위생등급별 차등가격제의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세균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유방염으로 발생하는 체세포수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의 위생검사결과를 보면 차등 가격제 시행초기인 6월의 1등급 비율은 전체의 23.0%에 그친 반면 10월상순에는 48.8%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가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방염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교육교재를 발간, 전국의 낙농가에 배포했으며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축협도지회 기술 요원들을 통해 낙농가에 치료방법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낙농제품 美 공식수출길 열려

우유 및 유제품, 라면스프 등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10월 15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인

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연방정부 법 개정을 추진중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연방정부법에 따라 일본, 영국, 호주 등 36개국에 한해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등 기타국가에 대해서는 소, 돼지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구제역이란 소, 돼지, 면양, 산양, 사슴류의 입, 코, 구강점막, 유두에 수포를 형성하는 동물의 급성, 열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말한다.

구제역은 폐사율이 낮으나 공기를 통한 전염성이 높고 일단 발생하면 근절이 어려워 경제적 피해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 병은 높은 전파력과 면역 지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방역이나 박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성인 36% 영양관리 잘못 91년도 국민영양조사결과

성인의 36%가 잘못된 식생활로 영양부족이거나 영양과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지난 91년 11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2천가구(7천7백9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91년도 국민영양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보사부가 10월 26일 발표한 이 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권장 섭취열량이 2천5백Kcal인데도 영양부족으로 분류되는 1천8백75Kcal(75%) 미만을 섭취하는 국민이 24.2%(90년에는 27.2%)였고 영양과다로 분류되는 3천1백25Kcal(125%)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은 12.2%(90년 6.1%)로 성인중 36.4%(전년에는 33.

3%)가 잘못된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3%는 하루 세끼 식사중 한끼 이상을 거르는 등 나쁜 습관에 빠져 있으며 특히 결식자중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26.4%이며 20대 역시 21.6%로 한창 성장기인 이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비만지수(BMI지수: 몸무게의 kg수치를 미터로 표시한 신장의 제곱치로 나눈 것)를 보면 25.1이상으로 정상치 20~25를 웃돌아 비만 증세를 보인 국민이 18.7%를 차지, 우리나라도 영양과다에 의한 비만이 점차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주요 영양소별로는 단백질, 철분, 비타민 B, C 등의 섭취율이 양호한 반면, 최근 유행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과 비타민 A는 필요량의 82.3%와 84.3%로 각각 낮게 나타나 우유, 유제품이나 잔뼈생선같은 칼슘 함유식품과 함께 녹황채소, 동물의 간, 알의 노른자 등과 같은 비타민 A 식품의 섭취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사람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식품량이 1천68g으로 그중 식물성이 8백57g, 동물성이 2백11g이며 총섭취열량중 곡물섭취비율이 ▲71년 84% ▲76년 82.3% ▲81년 75.5% ▲85년 69.5% ▲91년 65.8%로 낮아지는 반면, 동물성 단백질 비율(총단백질중 동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년 11.6%에서 91년 42.7%로 높아져 육류과다 섭취에 따른 성인병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